



사회적
진화론 8
(Social
Evolutionism)

자유주의 신학

1859년 다윈의 '종의 기원'이 출판된 지 얼마 되지 않은 19세기 말, 겉으로 보여지는 기독교는 거의 변함이 없는 듯이 보였다. 예배도 그대로 있고, 성가대도 있고, 여전히 세례식도 이어졌다. 그러나 무언가 변화가 있었다. 종교로서 기독교의 틀은 남아있었는데, 그 본질인 성경과 생명이 사라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그분께서 계시해주신 성경이 정확 무오한 사실이라는 믿음이 교회 안에서 흔들린 것이다.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기초가 사라진 것이다. 과연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여기에 분명한 답이 있다. 바로 자유주의 신학의 탄생이다.



자유주의 신학을 이해하기 위해 중요한 한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구약 신학자인 벨하우젠(Julius Wellhausen, 독일, 1844-1918)이다. 19세기 후반부터 그를 포함해서 몇몇 합리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하나님께서 계시한 무오한 책이 아닌 단지 사람들이 모아 놓은 글에 불과하다는 이론을 펴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모세오경은 모세가 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수많은 저자가 쓰고 편집된 역사로 여겼다. 그러므로 그 안에 쓰여진 아담과 하와는 실제 인물이 아닌 신화일 뿐이라고 여겼다.

구약학자인 하이니스(Paul Heinisch)는 성경 비평에 대한 이와 같은 자세가 진화론과 연결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하나님의 계시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 학자들은 진화의 관점에서 구약을 설명하려 한다. 그들은 구약의 유일신론은 저급한 단계 혹은 다신론에서 발전한 결과라고 하거나, 그것을 셈족의 독특한 본능 혹은 이웃 나라에서 빌려온 것으로 본다”(Paul Heinisch,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St. Paul, Minn.: Liturgical, 1955, p. 34). 브리스(David Brees) 역시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주장을 요약하는데 있어서 신학자들이 다윈이 가르친 진화 과정을 사실로 전제해버렸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벨하우젠은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었으며, 진화론과 마르크스주의에 영향을 받았다. 그러므로 그는 창세기를 하나님의 감동에 의한 책이 아니라 진화론적 사고 방식이 더 신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에게 기독교는 하나님의 계시의 종교가 아닌 인간 이성에서 기초가 된 합리주의적 종교가 되어 버린 것이다. 그의 책 “이스라엘 역사 서론(Prolegomena to the History of Israel, 1878)”에서 인간 이성과 진화론적 사고로 성경을 해석했으며, 모세 이전에 이스라엘 신앙은 토테미즘, 애니미즘, 조상숭배에서 발전되어 창세기로 발전되었다는 진화론적 사고를 구약학에 접목시켰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유일신, 십계명, 성막 등이 추가되어 더 정교한 교리로 발달되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명한 그의 ‘EJPD 문서 가설’은 구약을 보는 신학계가 성경에 대한 믿음을 잃게 하는 큰 영향을 주었고, 지금도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다. 이 가설은 모세오경의 저자를 모세가 아닌 다른 저자에 의해 쓰여 졌다고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창세기 1장은 ‘Elohim(E, 엘로힘)’이라는 하나님 칭호가 나오며, 그 다음은 ‘Jehovah(J,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하며, 레위기는 제사장 방식으로 기록된 ‘Priest(P, 제사장) 문서’이며, 신명기는 ‘Deuteronomy (D, 신명기) 문서’라고 하며 각각 다른 저자에 의한 기록이라는 것이다. 즉 오경은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쓴 것이 아니라, 여러 신에 관한 신화들을 모아

놓은 인간의 작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모세가 오경의 기자라고 여러 번 언급했다. 먼저 오경 자체에서 모세가 기자라고 말한다(출 17:14; 24:4-7; 34:27; 민 3:2, 신 31:9, 22, 24). 구약성경의 다른 기자들도 모세가 오경의 기자라고 말했다(수 1:7-8, 8:32-34; 사 3:4; 왕상 2:3; 왕하 14:6, 21:8; 역하 25:4; 예 6:18; 느 8:1, 13:1; 단 9:11-13). 예수님도 모세에 대하여 여러 번 말씀하셨다(마 8:4, 19:7-8; 막 7:10; 12:26; 눅 24:27, 44; 요 5:46-47, 7:19). 심지어 예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고 경고하셨다(눅 16:31). 신약성경의 기자들도 동일하게 모세에 대하여 언급했다(요 1:17; 행 6:14, 13:39, 15:5; 고전 9:9; 고후 3:15; 히 10:28).

하나님 호칭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다. 창세기 1장에 대한 ‘엘로힘(Elohim, 하나님)’이란 호칭은 만물의 창조자, 권능자, 만물의 주관자, 피조물보다 먼저 계시는 전능자의 개념을 가진다. 하나님의 창조적 활동에 대한 최초의 실제적 기록을 위해 모세가 사용했던 적절한 단어임에 틀림없다. 반면, 창세기 2:4절부터 등장하는 ‘여호와(Jehovah or Lord, 여호와 또는 주)’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가장 일반적인 용어이다(구약성경에만 6,823 번). 이 호칭은 ‘항상 계시고, 현재도 계시며, 앞으로도 계시 분’을 뜻하는 하나님의 개인적이고 존재론적 이름이다. 그러므로 창세기 2장에 사람의 창조에 초점이 맞춰진 개인적인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아주 적절한 호칭이다. 실제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 신학생과 목회자에게
성경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옛날의 덜 발달된
사람들이 쓴 글이 되었고,
결국 교회는 성경에 대한
신뢰를 버렸다.



여러 호칭이 등장한다. 이는 그때마다 그 기자들은 적절한 호칭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을 바르게 표현한 것이다. 만약 앞의 두 호칭을 거꾸로 사용했다거나 동일한 기자라고 해서 동일한 호칭을 썼다면 어떨까? 당연히 적절치 않다. 모세를 포함해서 각 성경의 기자들은 하나님의 호칭을 통해 그분의 다양한 속성을 알고 있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를 계시하심으로 성경은 그 일관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EJPD 가설을 지지하는 어떤 외부 증거가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어떤 역사에서도 이들의 흔적이 없다. 단지 이를 만든 벨하우젠의 마음에만 있는 것이다! 어떤 세속 역사책에 대한 비평을 할 때 이런 외적 증거 없는 방법을 적용했다면, 어떤 역사학자도 이런 비평을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비평은 단지 진화론적 신뢰 때문에 생긴 성경에 대한 불신이 만든 창작품일 뿐이다. 실제로 EJPD 가설은 일찍이 1678년 카톨릭 신부인 사이먼(Richard Simon, 프랑스, 1638-1712)에 제시되었던 이론이다. 그는 당시 엘로힘과 여호와와 이름을 쓴 두 명의 저자를 주장했었지만, 당시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벨하우젠은 이 이론에 몇 단계 더 추가한 것뿐이다. 신학교에서 이런 비평을 고등비평(higher criticism)이라고 가르친다. 그러나 이런 비평은 고등하지도 않으며 이미 성경보다 진화 역사가 사실이라는 전제하에서 나온 자세일 뿐이다.

벨하우젠과 같은 시도들이 등장하면서 많은 신학교들은 자유주의 신학으로 넘어 갔으며, 결국 기독교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부분을 제거시키는 우를 범하게 되었다. 기독교 리더들은 지적 교만으로 가득 찬 자유주의자가 되었다.

이제 신학생과 목회자에게 성경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옛날의 덜 발달된 사람들이 쓴 글이 되었고, 결국 교회는 성경에 대한 신뢰를 버렸다. 기독교는 근본 없는 인본주의 신앙으로 전락하고, 창조자이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공허 해졌다.

외형만 볼 때 유럽 교회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보였다. 그러나 영적 생활은 점점 비워진 것이다. 목회자들은 교회에서 성경 이외의 다른 이론과 철학자들의 말들을 더 많이 인용했고, 복음 외의 것들을 전했다. 성경보다 세상 생각을 위에 놓은 것이다. 이런 자세는 유럽을 넘어 미국 신학교에도 전파되었다. 그리고 미국도 동일한 결과를 낳았다. 신앙을 잃어버린 당대 모든 교회는 다음 세대를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제 다음 세대는 진리를 들을 기회마저 잃어버리게 된 것이다.

앞서 사회 진화론을 다룰 때 등장했던 공산주의, 나치를 포함한 세계대전 등 유럽은 20세기에 들어 엄청난 고통을 당했다.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나는 고통을 겪었다. 이때 유럽 교회는 거의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 많던 교회와 스스로 크리스천이라고 하던 자들이 오히려 성경을 버렸으며, 진화론을 실현하려던 자들에게 동조했거나 침묵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핵심인 성경에 대한 믿음을 버림으로 진화론에 파생된 사상들을 대처할 능력을 모두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아래 브리스가 교회 안에 있는 자유주의자들을 묘사한 글은 우리 교회가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다. “자유주의자들이 스스로 기독교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성경의 영감, 그리스도의 신성, 창세기 등을 부정하면서 기독교인들 가운데 하나로 생각해주기를 바라며, 실제로 크리스천이라고 한다. 그 결과 외견상으로 그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 어떤 면에서 기독교에 기생하는 존재로 생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재만 회장
지질학, 과학교육학,
구약학

참고문헌

Breese, Dave, Seven Men who Rule the World from the Grave, Moody Publishers: New edition, 1992.

Hodge, Bodie and Mortenson, Terry, Did Moses Write Genesis? Apologetics, Answers In Genesis, 2011.

Grigg, Russell, Who wrote Genesis? Creation, 20(4):43-46, 1998.



20차 유학생 창조과학탐사 & 10기 ITCM

유학생 창조과학탐사가 20차, ITCM이 10기를 맞이했습니다. 반복되는 프로그램인 것 같지만 스무 번과 열 번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인도를 생각하게 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간단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유학생 창조과학탐사

유학생 창조과학탐사는 2004년 겨울에 처음 출발했습니다. 첫 유창탐은 LA에서 치과를 하시는 한 집사님의 후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집사님과 함께 식사하던 도중, 이젠만 선교사가 “유학생들만 함께하는 창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에 집사님이 “한 번 해봅시다”라고 하시며 첫 참가비를 후원하시며 시작되었습니다. 2차 유창탐은 2005년 당시 온누리교회에서 ‘유학생교회 선교회’가 있었는데, 이때 회장이신 송만석 장로님께서 유학생교회 목사님들을 초청하며 이루어졌습니다. 창탐 마지막 날 대부분의 목사님들께서 ‘우리가 아니라 유학생들이 여기에 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바램을 나누셨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다음 3차 유창탐이 계획되었습니다.

이때부터 3-6차 유창탐은 서울 온누리교회와 알바인 온누리교회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 해 후원이 멈춘 적이 있었는데, 그 때 순복음 라스베이가스교회(강일진 목사)에서 후원해 주셔서 7차 유창탐이 멈춤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유창탐을 손수 행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8차부터 온누리교회에서 다시 후원해 주심으로 16차까지 진행했습니다. 16차까지 온누리교회의 후원은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리고 이어서 17차부터 20차까지 미주에 거주하시는 한 집사님으로부터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창탐의 간단한 역사를 통해서 바라기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헌신된 분들을 통하여 유창탐을 끊이지 않고 진행되게 하셨습니다.

10기 ITCM

ITCM(Intensive Training for Creation Ministry, 창조사역 집중훈련)은 창조과학선교회에서 진행하는 가장 심도 있는 창조과학 프로그램입니다. 7-8주간 지질학, 천문학, 생물학, 인류학, 언어학, 지구물리학, 야외지질학 등 7 명의 강사진들이 총출동하여 진행됩니다. 세미나, 수업, 독서, 강의발표, DVD 시청, 성경공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훈련생 인원은 10명 이내입니다.

2005년부터 창조과학선교회에서 인턴쉽이란 이름으로 한 두 명씩 개인적으로 훈련을 받곤 했습니다. 그때 훈련생 중에 조희천 형제가(당시 한동대 3학년 재학중, 현



유학생 창조과학탐사

미시시피 주립대학에서 지구물리학 박사과정 중) 2009년 네 명의 동료와 함께 다시 훈련에 참가했는데, 이때부터 ITCM이라고 부릅니다. 1기 ITCM을 시작할 때 재정이 전혀 없던 상황이었는데, 시작하기 3주 전에 시카고에 계시는 한 권사님으로부터(지금도 어느 분인지 모름) 후원을 받으며 시작했습니다.

1-3기 ITCM은 당시 LA 한인타운에서 하숙을 하며 창조과학선교회 사무실을 통학하며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숙식을 하는 곳과 훈련 장소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집중력이나 시간 절약 등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2011년 한 집사님 도움으로 훈련할 수 있는 지금의 숙소가 마련되어 집중력 있게 훨씬 효과적으로 ITCM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ITCM은 숙식뿐 아니라, 창조과학탐사, 야외조사 등 많은 경비가 드는데 이를 위해 후원해주신 분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두 달여 동안 자신의 시간을 내어 참가한 훈련생들, 그리고 적은 수에 개의치 않고 열정적인 강의를 해 주기 위해 멀리에서 오는 강사 분들, 즉 후원자-훈련생-강사의 삼박자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ITCM 10기



유학생 창조과학탐사와 ITCM의 가장 큰 특징은 모두가 다음 세대를 향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진화론으로 가득 찬 젊은 세대에게 진화론적 사고에서 벗어나 성경적 사고로 전환시키는 강력한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참가한 젊은이들로부터 주님의 열매가 맺는 앞으로의 세대를 기대합니다.

창조과학탐사

지난 12월 10-12일 하와이 열방대학에서 훈련을 마친 DTS(담당목사 김모세)

하와이 열방대학 DTS



팀이 참석했습니다. 참가 인원이 많아 두대의 버스로 이동했습니다. 이재만 선교사와 김낙경 박사가 인도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성경적 증거들을 통해 진화론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이 시대가 얼마나 진화론에 젖어 있는지, 그리고 교회까지 들어온 진화론을 확인했습니다.

세미나

이재만 선교사는 12월 5, 7일 충현선교교회(담임목사 민종기)에서 '타협의 거센 바람' '창조과학 사역의 동향'에 대한 주제로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바리온수(중입자) 보존과 반물질의 수수께끼



Baryon Conservation & Antimatter Mystery

우주에 보이는 모든 것은 물질이다. 물질은 원자로 이뤄졌는데 원자는 가운데 원자핵과 그 핵을 돌고 있는 전자로 구성되었다. 여기서 원자핵은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가 강력하게 결합된 구조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개발된 다양한 가속기들을 통하여 원자핵을 양성자와 중성자로 나눌 수 있었고, 또 분리된 양성자를 더 작게 쪼개는 실험으로 양성자빔을 만들고 이 빔들을 가속시키고 서로 충돌시켜 쿼크(quark)라는 아원자(subatomic particle, 원자보다 작은 입자 혹은 원자를 구성하는 기본 입자)들을 만들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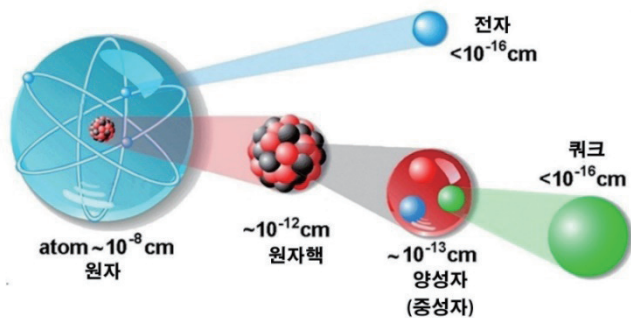


그림1. 원자-원자핵-양성자-쿼크 모형

지금까지 입자물리에서 발견되었거나 이론으로 추측하는 모든 입자는 기본 입자와 이들의 조합으로 이뤄진 합성입자로 구분한다. 기본입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들이다. 이 기본입자는 스핀값(양자역학에서 입자의 회전 정도를 나타내는 고유한 각운동량)에 따라 보손(Boson)과 페르미온(Fermion)으로 구분한다. 먼저 보손은 스핀값이 정수이다. 한편 표준모형에서 페르미온의 스핀값은 반정수(1/2)이며 각 페르미온 입자에 대응하는 반입자가 존재한다. 그리고 페르미온 입자는 다시 강한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이론에 따라서 쿼크와 경입자(Lepton)로 나뉜다.

기본입자 현재 실험에서 기본 입자는 쿼크와 경입자(렙톤) 및 보손이다. 오늘날 과학자들이 제시하는 표준입자모델은 쿼크입자 6개와 그들을 힘으로 매개해주는 입자 2개, 경입자(렙톤) 6개와 역시 힘으로 이들을 연결하는 입자 2개로 모두 16개 입자들이다. 그리고 질량을 결정해 주는 또 다른 입자로 소위 마지막 입자로 알려진 힉스입자 (Higgs boson)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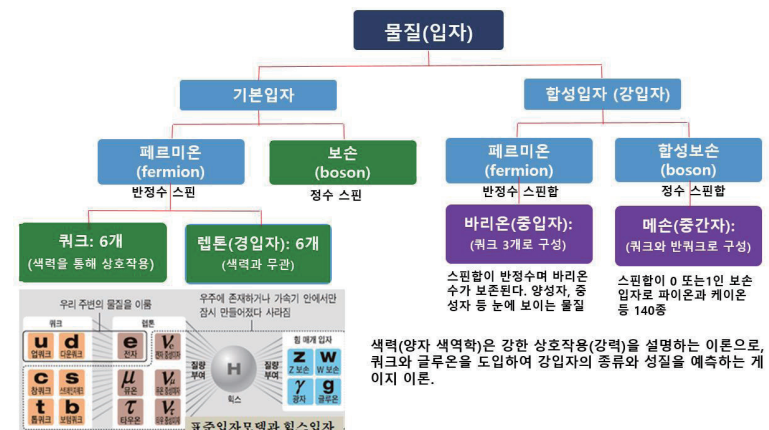


그림 2

이렇게 표준모델에서 제시하는 기본입자들은 모두 17개 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계속되는 실험을 통해서 수십 가지 입자들이 더 발견되었고 또 이론으로 예측하는 입자들까지 포함하면 더더욱 많다. 이렇게 많은 종류의 입자들이 모두 양성자로부터 나온 것들이다. 양성자에서 나온 이 입자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가설들이 세워지고 또 이를 확인하려는 많은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다.

합성입자 합성입자는 기본입자인 쿼크들이 글루온과 결합하여 만들어진 비교적 무게가 있는 강입자(hadron)들이다. 강입자는 세개의 쿼크로 조합된 입자를 바리온(중입자), 하나의 쿼크와 하나의 반쿼크로 이뤄진 입자를 중간자(메손)로 구분한다.



양성자(proton) & 반양성자(antiproton)

그림 3

원자핵을 구성하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바리온(중입자)들이다. 양성자는 그림3과 같이 두개의 쿼크(up)들이 또 다른 쿼크(down)와 글루온으로 결합되어 있다. 반면에 이와 짝이

되는 반양성자(antiproton)는 두개의 반쿼크(up)와 또 하나의 반쿼크(down)로 이뤄진다. 이렇게 쿼크와 반쿼크들이 같은 방식으로 조합된 중성자와 반중성자를 포함한 중입자들이 모두 합성입자들이다.

바리온(중입자)수의 보존

합성입자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은 바리온(중입자)수가 보존된다는 점이다. 바리온(중입자)수는 쿼크의 수로 결정된다. 하나의 쿼크는 바리온수가 $1/3$ 이고 반쿼크는 바리온수가 $-1/3$ 이다. 따라서 세 개의 쿼크로 이뤄진 바리온(중입자)은 바리온수 1이고 하나의 쿼크와 반쿼크 하나로 이뤄진 중간자(Meson)는 바리온수 0이다. 물론 쿼크 이외의 모든 기본입자는 바리온(중입자)수가 0이다.

실제로 핵반응시 바리온(중입자)의 수는 불변한다. 이를 바리온(중입자)수 보존이라고 하는데 핵반응 전후의 바리온(중입자) 수가 동일하다.

그런데 바리온(중입자)수 보존이 왜 문제인가? 그 이유는 이 법칙이 빅뱅의 가설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빅뱅이론은 우주가 대폭발 직후 짧은 순간 순수 에너지 덩어리로 확장되고 그 후 고에너지 전자기파로 응축하는 일련의 양자파동(quantum fluctuation)으로 시작되었다는 가설이다. 이 과정에서 고에너지 전자기파들이 동일한 숫자의 바리온(중입자)들과 반바리온(antibaryon) 입자들을 만들어 냈다는 것이다. 이것이 소위 쌍-생성과정(pair production)인데 양쪽의 반응으로 전체 총 바리온(중입자) 수는 0이다.

이는 실제 실험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입자(물질)를 생성시킬 경우에 양의 바리온(중입자)과 반바리온(혹은 반물질)이 같이 생성되어서 전체 바리온수가 0

이 된다는 뜻이다. 또 바리온 입자인 양성자와 반바리온 입자인 반양성자가 서로 접하면 이들은 두 개의 고에너지 광자로 소멸하게 된다. 그런데 실제의 우주는 양성자와 중성자 같은 바리온(중입자)들로 구성된 눈에 보이는 물질이 가득하다. 왜 바리온(중입자)수가 보존되는 것일까? 이점이 오늘 날 빅뱅 우주론의 큰 문제이다. 하지만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우주가 둘 중에 하나로 만들어진 의도적인 디자인임을 가르쳐 준다.

반물질의 수수께끼

반바리온 또는 반물질(antimatter)이라고 하면 공상과학 이야기 같다. 하지만 실험에서 확인된 실재이다. 하나의 반물질 입자는 정상적인 물질과 동일한 질량을 가진다. 단지 전기적 전하가 반대이다.

진화과학자들은 빅뱅의 결과로 물질과 반물질이 동일하게 생성되었고 오늘날에도 그 잔재가 우주 어딘가에 있다고 믿는다. 지금까지 관측되지 않았지만 우주 끝 어딘가에 반물질이 있다는 주장이다. 주목할 점은 반물질과 물질이 공존할 수 없으며 이들이 함께 하면 물질이 소멸되는 동시에 특유의 고에너지 고주파(감마)선을 방출한다. 그런데 이 우주에 잔류하는 반물질은 물론이고 고에너지를 방출하는 어떤 은하계도 관측된 바 없다. 물론 학자들은 비대칭성 이론으로 정상의 물질과 반물질의 불균형을 설명해 보려고 하지만 이는 확인되지 않은 가설들일 뿐이다.

오늘도 많은 과학자들이 물질의 기원에 대하여 도전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물질의 근원에 대한 답을 찾기 보다는 오히려 미시계의 복잡함과 신비한 조화를 발견하고 이를 연구하고 있음은 매우 흥미롭다. 자연주의는 간단한 물질로부터 복잡한 물질로 스스로 진화해 간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제까지 연구 결과를 볼 때 아무리 작고 간단한 입자라도 저절로 생겨날 수 없으며, 또 미립자 물질세계는 우연과 저절로의 관점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필연적인 질서와 조화를 보여 주고 있다. 질서와 조화는 저절로 만들어 질 수 없는 지혜의 소산이다. 최첨단 연구 덕분에 오늘날도 우리는 하나님 창조의 신비와 지혜를 더욱 실감하고 있는 것이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롬11:33)



이동용 박사
항공우주공학



이 기사는 창조과학탐사에 참여한 자들에 의한 간증 소감문으로 더 많은 내용을 보시려면 홈페이지 www.hisark.com 의 ACT 간증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ad great insightful time!! 생각만으로 할 수 없는 감동을 많이 받은 탐사여행이었습니다. 성경의 권위에 대하여 그리고 제 믿음에 대하여 많은 영향을 받은 여행이었습니다. 여행을 마치며 묵상하게 되는 것은 몇명의 희생과 열정으로 내가 이 은혜의 자리에 오게 된것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더욱 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널리 퍼지기를 바랍니다. - 변 가람 <뉴욕in2교회>



창조과학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이 여행은 저에게 있어 큰 충격이었습니다. 세상을 무지하게 살아가고 단순히 겉모습에 의해 판단했던 저에게 큰 깨달음을 얻게 해준 여행이었습니다. 이전에 저의 자연을 바라보는 시선은 단순히 '기쁘다', '봐서 너무 좋다' 였는데 그것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기쁘지만은 않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주님은 얼마나 슬프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뜻깊은 시간이였고 제 자신을 돌아보고 제 자신안에 계신 주님을 찬양하는 너무나 감사한 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곽 태호 <뉴욕in2교회>

지금은 창조탐사 여행 버스안입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마지막 날, 다시 LA 공항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6일이 6시간 같이 지나갔지만 얻은 것은 그 어느 것 보다 값진 보석보다 귀한 것을 얻어갑니다. 믿지 않는 불교집안에서 태어나 학교수업에서 들은 진화론 이외에는 다른 기회가 없었습니다. 더욱 더 명확하게 주님 창조하신 모든것들을 깨닫게 되어 감격입니다. 이 버스는 진리를 선포하는 '생명의 버스' 라는 마음이 듭니다. 이 생명버스가 계속해서 운행되도록 기도로 동참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 원경 <뉴욕in2교회>

6일 내내 들었던 생각은 '아 창조탐사여행 안 왔으면 어쩔뻔 했나?' 였습니다.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보며 여행하는 거겠지..생각했었는데 너무나도 자세한 설명들과 성경에 나와있는 증거들을 눈으로 보고 느낄수 있었던 감동의 시간이였습니다. 이 탐사여행을 통해 천국소망이 더 확실해 졌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보고 들었던 것들을 잊지 않고, 내 주변에 전하며 살아야 겠다는 다짐



을 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바라는게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해 주신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그 열정을 기억하며 저도 다음세대에 성경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며 살고 싶습니다. 처음이 좋았고,처음 이전에도 좋았지만 예수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매일매일이 좋아질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 정 유안<뉴욕in2교회>

사실 이번 탐사를 오기전 '창조과학' 이라는 것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심과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잘 알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이 모든것을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진화는 뭐지?' 라는 생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탐사를 통해 정말 많은 감동과 깨우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다 믿지 못했던 제가 한심했습니다. 이번 탐사를 통해 그 분의 놀라운 능력을 보았고 그분의 모든 행하심이 성경에 있으니 성경을 다시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주위에 이 성경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민<뉴욕in2교회>

2019 ACT Schedule

2/16	창조과학세미나 (남가주사랑의교회), 이재만
2/17	창조과학세미나 (LA소망장로교회), 이재만
2/18-24	창조과학탐사 (생터성경사역원), 이재만
4/5-7	창조과학세미나 (퍼듀한인장로교회), 이재만
4/8-18	창조과학탐사 (송현성결교회), 이재만
4/21-26	창조과학탐사 (일본팀), 이재만
4/27	창조과학세미나 (주님의영광교회), 이재만
4/29-5/4	창조과학탐사 (기독교미래연구소), 이재만
5/1-5	창조과학탐사 (CIU), 김낙경
5/16-23	창조과학탐사 (두란노바이블칼리지), 이재만
5/25-31	창조과학탐사 (서초충신교회), 이재만

● 보다 자세한 일정은 웹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